



정영창 작 '김재규' (왼쪽)와 강운 작 '철책 단상'.

산수미술관 29일까지 '동시대 미술, 역사를 말한다' 전...정광희·이매리·송필용 등 참여

작가들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까. 산수미술관(관장 장민한)이 개관 1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준비한 '동시대 미술, 역사를 말한다' (29일까지)전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이후 3·1운동 이후 한 세기의 '한국 근현대사'를 소환한 전시다. 지역 중견 작가 9명을 초청한 이번 전시는 추상화, 민중미술, 극사실, 설치, 개념, 웹툰 등 다양한 현대미술 장르를 통해 역사와 예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서사가 만들어지는 광경을 목도하는 전시이기도 하다.

"역사를 단순한 연대기가 아닌, 이야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작품을 전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에게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작가들은 세상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데, 그 시점을 개성있는 창조작업으로 구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전을 준비한 장관장과 이서현 큐레이터는 작가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작가 나름의 시선으로 잡아낸 작품을 걸고 싶다"는 생각을 전했고 작가들은 이에 응해

작품과 함께 작품에 대한 글을 보냈다. 전시장에 걸린 작품들은 100호 이상의 대작들이고 작품 옆에는 작가의 글이 붙어 있다. 강운 작가의 '철책단상'은 작가가 33년전 경계 근무를 서던 당시 올려다 본 철책 위 가시덤불 같은 철조망을 통해 느낀 비극적 조형미를 풀어낸 작품으로 어지럽게 얽히고 설켜 철망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매리 작가의 'Poetry Delivery 190301'은 이 작가의 'Poetry Delivery' 연장선에 있는 작품으로 만해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 일부를 바탕으로 세진 작품으로 하얀 점들 아래 철책같은 검은 바탕을 유심히 살펴보면 글자가 드러난다.

정광희 작가의 한지 작업은 현장에서 봐야 진가를 알 수 있다. 다양한 글씨가 적힌 한지 위에 천연색에 가까운 알사탕 크기의 종이 덩어리를 일일이 얹어 민중의 곁집을 표현했다. 민중미술 진영에서 활동하는 조정대 작가의 작품 '검은 깃발'은 강렬하다. 송필용 작가는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담담히 견뎌온 민중의 존재를 두터운 마티에



김상연 작 '안중근'

되지 않은 식민 잔재의 문제를 상자 안에 갇힌 두상과 플라스틱 의자 등의 소품을 통해 들려준다.

송필용 작가는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담담히 견뎌온 민중의 존재를 두터운 마티에

로 표현했으며, 김유섭 작가의 '두 빛'은 새까만 흑백 배경 한 귀퉁이에 보일듯 말듯 걸려 있는 붉은 빛으로 희망을 표현한다. 그밖에 재독작가 정영창은 10·26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된 사건을 상기시키는 '김재규'를 선보인다.

다소 생소한 그림은 웹툰 작가 황중환의 작품이다. 파울로 코엘료와 여러 차례 작업한 황 작가는 화면을 가득 메운 푸른색이 인상적인 작품 'Sailing'을 통해 매 순간마다 역사를 견인하며 도도히 흘러가는 민중의 모습을 그려냈다. 김상연 작가의 작품은 지하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영웅 시리즈 중 하나로 붉은 배경과 어우러진 설치작품 '안중근'을 선보인 김상연 작가는 나무에 글씨를 새겨놓은 안중근 열사의 '손'에서 이 시대 영웅상에 대한 단상을 곁집어낸다. 관람 시간 화-토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 문의 062-234-978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난 향기에 취하고 가훈 받아 가세요

광주난연합회 9~10일 비엔날레전시관 김남기 화가 수묵화·사군자 시연도



"난이 쫓기는 봄 내음에 빠져 보세요." (사)광주난연합회(이사장 김진홍)는 오는 9일부터 이틀 간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에서 '27회 광주난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 21개 단체 300명의 회원이 정성 들여 가꾼 난 500여점이 선보여진다. 이들 출품작은 심사를 통해 순위가 매겨진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김남기 문인화가가 수묵화·사군자를 시연하고 가훈 등 좋은 글을 써서 관람객에게 무료로 선물할 예정이다.

광주난연합회는 자생난 종자 보전과 개발·육성을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다. 개막식은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의 010-3605-203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떠돌던 나를 붙잡다'

곡성 출신 김용운 첫 시집 펴내



"나비로 하늘을 훨훨 날아올라 넓은 세상을 내려보며 나의 가슴을 하트로 가득 채워 파스한 하트를 주변에 나누며 살아가리라는 또 다른 소망을 간직해봅니다."

곡성 출신 김용운 시인이 첫 시집 '떠돌던 나를 붙잡다' (문학인)를 펴냈다.

시집에는 '어머님의 기도' 외 78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오랫동안 풀어왔던 지나온 삶의 흔적을 갈무리한 시집은 풍경화 같은 잔잔한 여운을 선사한다. 일상의 소재를 따스한 기쁨으로 풀어낸 작품에선 소소함과 진정성이 느껴진다. "쏟아진 비가 흠뻑 젖어도 종착역은 바다요, 쉬엄쉬엄 흘러가도 결국 바다인 것"이라는 말에서 보듯 시인이 지향하는 세계는 바다와 같은 품이 넓은 삶인 듯하다.

김용운 시인은 추천사에서 "그가 가는 길에 문우의 한사람으로서 뜨거운 박수를 바친다"며 "평범한 속에서 몸부림치고 용솟음친 흔적들, 그 속에서 감정의 파장이 일어나는 비범함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한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5·18 시민군 故 이강하 '100년의 염원...' 전

5월 7일까지 이강하미술관...시민 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광주시 남구 이강하미술관은 민주화와 자유·평화, 통일을 염원했던 광주 5·18 시민군(故)이강하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100년의 염원, 광복의 꿈길'을 주제로 5월 7일까지 진행되는 새로운 기획전에서는 이 화백의 대표적인 작품 소재인 무등산과 광주를 지키는 여성의 누드, 그리고 단정무늬 오방색의 비단길에 등장하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표작이 선보인다. 작가는 무등산을 현실 넘어 존

재하는 평화의 존재이자, 통일된 조국 강산으로 인식하고 작품을 그려나갔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1992년에 제작한 '아! 천지(무등에서 백두까지)'와 1990년대 백두산 천지 방문 아카이브 사진과 친필 소감문 등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시민 500여명과 함께 대표작 '비단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평화의 꽃길' 그리기 행사도 진행한 미술관측은 전시 기간 중 또 다른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열 예정이다. 월요일 정기 휴관. 문의 062-674-8515. /김미은 기자 mekim@



'아! 천지(무등에서 백두까지)'

문화예술 지원단체·예술인 대상 '찾아가는 워크숍'

전남문화관광재단 8일 목포·11일 여수

전남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조용익)은 2019 전남 문화예술 지원사업 선정단체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8일 오후 1시30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과 11일 오후 1시30분 여수 전남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사업 수행에 앞서 전반적인 운영사항과 예산 집행, 회계 운영 등에 대한 교육으로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선정단체 사업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사용 안내 및 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안내, 예술인 복지관련 안내 및 저작권 교육 등이다.

재단은 올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간연계형 창작활동지원 등 7개 사업, 총 310건(24억 4000만원)을 선정했다.

한편 재단은 선정단체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사업목표 설정 등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지원사업 컨설팅'을 오는 3월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새로운 소리를 듣다

##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165,000 원 (VAT포함)

2019년 3월 27일 (수)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 062-228-4711~2



## 2019 Dinner Show

# 박상민

## 봄맞이 디너쇼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로케일 증명)

Shin Yang Park Hotel  
HOTEL & RESORT CLUB